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미 증시, 유가 급락에도 마이크론 실적 대기심리 등으로 혼조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4일(수) 미국 증시는 직전일 급락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유입 속 WTI 70달러 하회 소식에도, 마이크론(-0.3%) 실적을 앞둔 대기 심리, 모건스탠리 및 아폴로의 사모대출펀드에 대한 환매 요청 소식으로 인한 사모신용 불확실성 재부각 등으로 혼조세 마감(다우 +0.4%, S&P500 -0.1%, 나스닥 -0.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5%).

최근 사모대출 운용사 이외에도 알파벳, 아마존, MS 등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주가는 취약한 흐름을 보였으며, 이는 전일에도 확인했듯이, 고금리로 인한 사모대출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불확실성이 주가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주요국의 국제 발행 증가 추세로 시장 금리의 빠른 레벨 다운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기는 함.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에는 에너지 인플레이션 불안이 영향을 가했으며, 전일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 확대 등으로 유가가 미-이란 전쟁 직전 수준까지 내려온 점에 주목할 필요. 덕분에 한동안 4.5%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였던 미 10년물 금리가 4.3%대까지 하락하는 등 금리 부담이 이전보다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안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도 긍정적. 분기 매출액(414억달러 vs 컨센 355억달러), 매출총이익률(GPM, 84.9% vs 컨센 81.7%) 모두 예상을 큰 폭 상회했으며, 차분기 매출액 가이던스(500억달러 vs 컨센 435억달러), 차분기 매출총이익률(86% vs 컨센 83.7%)도 서프라이즈를 시현.

컨콜에서도 “3~5년 장기계약(SCA=LTA)을 16건 체결, 향후 매출의 40% 차지 예상”, “16건 중 14건에 대한 누적 매출액 1,000억 달러 전망”, “선금금 약 220억달러 수령 예정”,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2027년까지 지속” 등을 언급했다는 점은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안정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 이로 인해 마이크론은 시간외에서 12%대 폭등하고 있는 만큼, 주 초반 역대급 폭락을 겪었던 한국 등 주요국 증시의 투자심리를 호전시켜주는 요인이 될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직전일 약 10%대 폭락에 따른 낙폭과대 인식 속 삼성전자의 대규모 주주환원 기대감,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기대감 등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장 초반 반등에 나선 가운데, 이후에도 바이오, 이차전지 등 여타 성장주들도 반등에 동참한 영향에 힘입어 상승 마감(코스피 +3.3%, 코스닥 +2.0%).

금일에는 WTI 70달러 하회, 미 10년물 금리 4.4%대 하회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속 마이크론 어닝서프라이즈, 코스피200 야간선물 5%대 강세 등으로 상승 출발하면서, 직전일에 이어 주 초반의 폭락분을 만회해 나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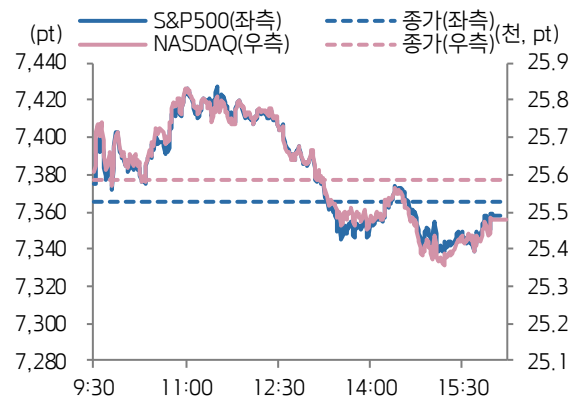
한편, 여전히 외국인인 코스피에서 5월 44.4조원 순매도한데에 이어, 6월에도 31조원(~24일) 순매도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중심으로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외국인 반도체 5월 -37조원, 6월 -29조원). 그러나 이 같은 순매도가 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 국내 정책 불확실성 등 한국 증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메모리 업황 피크아웃 베팅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액티브 외국계 펀드 중심의 차익실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패시브, ETF 외국인 수급 관점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

일례로, MSCI 한국 지수 ETF인 EWY의 수급을 보면, 5월 29억달러 순유출에서 6월 6.8억달러 순유입을 기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6%, 27% 비중으로 편입된 ETF인 DRAM에서는 5월 82억달러 순유입에 이어 6월에도 73억달러 순유입된 상태. 더욱이, 23일 국내외 반도체주 폭락 여파로 DRAM 주가가 14% 급락했지만, 이날 20억달러 순유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우위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

물론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 SK하이닉스 ADR 발행 공시 등을 고려 시 금일에도 반도체 쓸림 현상이 나올 수 있는 함. 다만, 현재 유가가 전쟁 직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고유가발 경기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는 증시 전반의 환경을 호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며, 이전보다 쓸림 현상의 빈도수가 덜해질 수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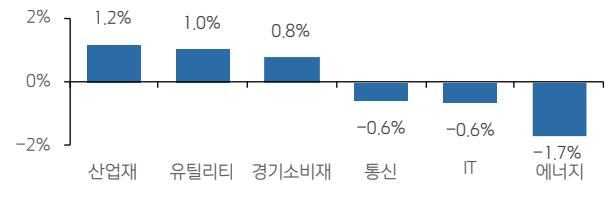
따라서, 주도주인 반도체를 포트폴리오의 코어로 가져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나, 그 밖에도 6월 이후 외국인 수급이 호전되고 있는 업종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 대표적으로, 기계(외국인 4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번주 수익률 -10.5%), 증권(6거래일 연속, -10.1%), 건강관리(6거래일 연속, -0.1%), 철강(5거래일 연속, -7.4%), 화학(5거래일 연속, -9.4%) 등이 외국인 수급을 활용한 트레이딩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판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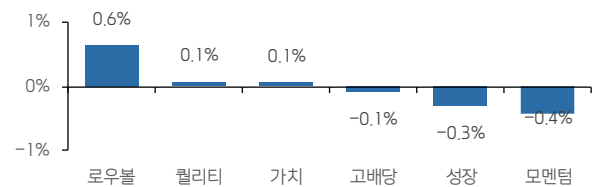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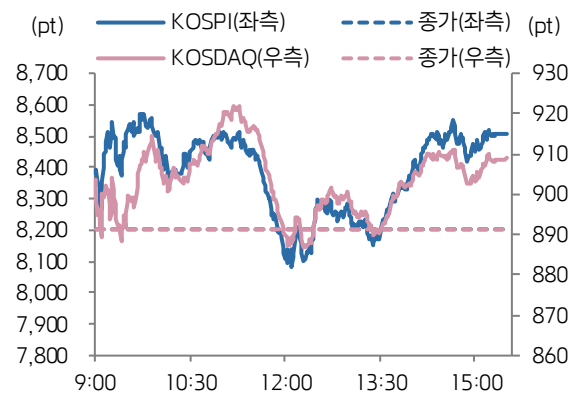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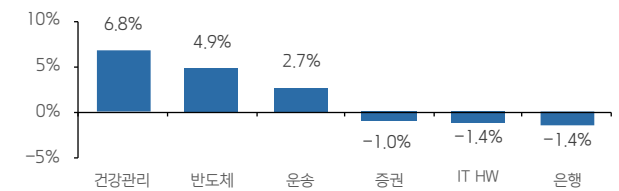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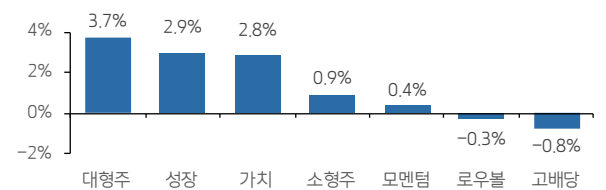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93.08	-0.41%	+7.81%	GM	78.95	+0%	-2.91%
마이크로소프트	365.46	-2.27%	-24.43%	일라이릴리	1,117.26	+0.92%	+3.96%
알파벳	345.29	-0.24%	+10.32%	월마트	119.00	-0.35%	+6.81%
메타	557.67	-0.81%	-15.52%	JP모건	333.45	-0.21%	+3.49%
아마존	234.27	+0.07%	+1.49%	엑손모빌	136.90	-2.03%	+13.76%
테슬라	375.53	-1.59%	-16.5%	세브론	171.45	-2.57%	+12.49%
엔비디아	199.00	-0.52%	+6.7%	제너럴일렉트릭	119.00	-0.4%	+6.8%
브로드컴	382.07	+0.51%	+10.39%	캐터필러	994.45	+1.04%	+73.59%
AMD	519.74	-0.02%	+142.69%	보잉	220.25	+1.63%	+1.44%
마이크론	1,048.51	-0.31%	+267.37%	넥스트에라	87.62	+1.4%	+9.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8,471.02	+3.26%	+101.01%	USD/KRW	1,542.70	+0.63%	+7.17%	
코스피200	1,369.62	+3.63%	+126.02%	달러 지수	101.57	+0.16%	+3.3%	
코스닥	909.31	+2%	-1.75%	EUR/USD	1.14	-0.21%	-3.3%	
코스닥150	1,644.97	+2.9%	+6.31%	USD/CNH	6.81	+0.27%	-2.33%	
S&P500	7,358.22	-0.1%	+7.49%	USD/JPY	161.78	+0.14%	+3.24%	
NASDAQ	25,476.63	-0.43%	+9.61%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51,848.90	+0.35%	+7.88%	국고채 3년	3.775	+1bp	+82.4bp	
VIX	18.63	-4.41%	+24.62%	국고채 10년	4.173	+1.1bp	+78.8bp	
러셀2000	2,986.63	+0.37%	+20.34%	미국 국채 2년	4.146	-5.3bp	+67.3bp	
필라. 반도체	13,458.19	-0.18%	+90%	미국 국채 10년	4.392	-10.5bp	+22.5bp	
다우 운송	21,609.04	-0.1%	+24.5%	미국 국채 30년	4.840	-10.6bp	-0.4bp	
상해종합	4,110.81	+0.11%	+3.58%	독일 국채 10년	2.865	-5.4bp	+1bp	
항생 H	7,764.97	+0.07%	-12.89%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6,991.22	+1.04%	-9.66%	WTI	70.34	-3.92%	+23.32%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3.74	-4.33%	+21.18%
Eurostoxx50	6,214.70	-0.25%	+7.31%	금	4,008.80	-3.39%	-9.72%	
MSCI 전세계 지수	1,104.40	-0.19%	+8.85%	은	58.09	-6.42%	-17.73%	
MSCI DM 지수	4,752.94	-1.43%	+7.28%	구리	594.85	-3.24%	+4.69%	
MSCI EM 지수	1,733.68	-3.83%	+23.45%	BDI	2,667.00	-0.63%	+42.09%	
MSCI 한국 ETF	197.26	+2.63%	+102.9%	옥수수	434.75	-0.57%	-5.59%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96.00	-0.17%	+9.21%
비트코인	60,877.60	-2.43%	-30.54%	대두	1,135.00	-0.59%	+6.62%	
이더리움	1,611.42	-3.06%	-45.88%	커피	277.20	+0.45%	-13.4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24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